

목포시, 전국 제1의 수산식품도시 선도

목포어묵, 2021년 도(道) 지역성장 전략형 공모사업...100억원 투입

수출전략형 김가공산업, 내년도 수산식품 역량강화 정부사업 확정



목포시가 3대 미래전략산업의 하나로 역점 추진 중인 수산식품산업의 고차가공산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전국 제1의 수산식품도시로의 도약이 가시화되고 있다.

시는 '목포어묵 육성사업'이 지난 20일 전남도의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은 전라남도 시군의 자립 발전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전략사업을 선정하여 사업 당 100억원(도비 50, 시비 50)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5개 시군이 공모한 결과 목포시를 비롯한 4개 시군이 최종 선정됐다.

목포시는 그동안 전국 어업생산량의 56%를 차지하는 풍부한 수산물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하

기 위해 고차가공 명품어묵 개발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간 지역업체들과 협력해 고품질 어묵제품을 개발하는 등 사업 실현가능성 및 산업과급효과를 증명해 이번 공모사업에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시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전라남도 최초 HACCP 시설을 갖춘 연속생산 스마트공장 및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특화어묵 개발 및 브랜드화 지원 등의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목포시의 핵심 전략산업 중 하나인 수출전략형 김가공산업 육성사업이 '21년도 주요사업 정부예산'에 최종 반영되어 2025년까지 5년 동안 정부예산을 지원받

게 된다.

김 수출국과 수출품의 다국·다양화, 다변화로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기회 제공을 위한 신제품 개발 지원 필요성과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 전(前) 김가공기술 개발을 위해 2021년이 최상의 투자 시기임을 강조하여 타지역과의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입증하였다.

시는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의 연구기반(인력, 시설)을 활용해 '국내김 산업의 글로벌 식품화'를 위해 기업의 가공기술력 향상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정부의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에 포함돼 탄력을 받고 있는 목포시의 수산식품수출단지는 대

양산단 2만8133㎡의 부지에 2022년 완공을 목표로 108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목포시는 수산물 최대 집산지인 대중국 수출전진기지로서 적합한 지리적 이점 등 발전가능성을 갖추고 있다. 시는 생산·가공·유통·물류 기능을 집적화된 수산식품수출단지의 조성을 통해 미래 수산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한,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으로 김 수출산업에 청신호가 켜져 관련 기업이 대거 유치될 전망이다.

목포시는 수산식품산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올해 초 '2020/2029 중장기 목포시 수산발전 기본계획'을 수립, 8개 전략사업에 35개 과제를 발굴하여 수산분야의 미래 신성장 동력사업 기반 마련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부가가치 산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그동안 원물 형태로 취급하던 목포의 수산물에 대한 발전 방향에 대한 고민이 깊었다"며 "맛의 도시 목포와 연계하여 부드럽고 고소한 목포어묵, 전국민 대표 먹거리인 김가공산업육성과 최고급의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을 기록제로 수산식품수출업 선도함으로써 전국 제1의 수산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목포=박정수 기자

무안군, 4개 읍면사무소 내진보강사업

무안·일로·삼향·몽탄 등 12월까지 공사완료 예정

무안군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대책으로 9개 읍면사무소 중 8개 읍면사무소에 대해 내진성능평가를 완료하였으며 청계면 사무소는 신축예정인 내진보강사업에서 제외되었다.

내진성능평가 결과 무안, 일로, 삼향은 C등급으로 내진보강이 시급하며 몽탄, 현경, 망운, 해계, 운남은 B등급으로 8개읍면 모두 내진보강이 필요하다.

올해 상반기 무안, 일로, 삼향 몽탄 4개 읍면사무소 내진보강설계 검증 용역을 완료하였

고 8월부터 12월 말까지 4개월간 사업비 7억 원을 투입하여 내진보강공사를 실시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 공공시설물 내진율은 40.2%로 82개소의 시설물 중 33개소의 내진성능을 확보하였고, 단계적으로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을 강화하겠다"면서, "군민들에게 공사 일정을 사전 안내하여 공사 중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함평군보건소 "코로나19 지역감염 방지 총력"

연일 300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 함평군보건소 방역대책반 관계자들이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지역 다중이용시설 947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도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스티커를 부착했다.

함평군은 지난 7월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는 광화문 등 수도권 집회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지역 내 종교·상가·유흥 등 21개 분야 1천676개 시설을 대상으로 손소독제 비치, 이용자 명부 작성 등의 코로나19 예방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있다.

함평=김광춘 기자



코로나19 극복

대수많은 담양
공동브랜드

함께해요!

대수많은 생태도시 담양의 청정자연에서 따뜻하고 성실한 농부의 손길로 수확한 건강한 우리 농산물과 함께 코로나19의 빠른 극복을 기원합니다.

우리 집 알리는 특별한 건물번호판

영암군,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적극 권장

영암군에서는 아름다운 거리 문화 조성은 물론, 건물 본연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자율형 건물번호판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자율형 건물번호판은 건축주가 건물의 외관과 주변 환경에 어울리도록 크기, 재질, 디자인 등을 자유롭게 제작해 설치할 수 있어 기존의 표준형 건물번호판과 차별성이 있고, 건물과 조화로운 디자인이 가능하며, 단순한 주소표기를 넘어 건물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를 원하는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 종합민원과에 제출하고 제작 가능 통지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제작 설치하면 되며, 건물 설계 단계부터 건물번호판 디자인 등을 반영하여 건축물의 허가·신고를 하게 되면 별도



신청절차 없이 제작할 수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자율형 건물번호판 제도를 잘 모르는 군민들과 관내 건축사무소에 설계 단계부터 자율형 건물번호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 리플렛을 배부,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관내 건물 특성을 살리고 도시 미관 및 가시성을 향상시키는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 생활의 편리뿐만 아니라 아름다움까지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따른 영광군, 종교시설 대대적 현장점검 실시

영광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적으로 확대된 가운데 지난 23일(일요일) 전라남도도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관내 109개 종교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이날 점검에서 군은 관내 종교시설의 예배유무를 확인하고 부득이하게 예배 진행 시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 금지, ▲시설 내 참석자 간 간격 최소 1m 이상 유지, ▲실내외 마스크 착용 및 종교시설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취식행위 금지 등 종교시

설 준수사항을 집중 점검하였다.

영광군에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난 2월부터 관내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일대일 전담공무원제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집회, 교육 등 자제를 당부하고 현장점검에 나서고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종교시설의 적극적인 양해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집회를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종교시설 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광=서희권 기자